



강진 김영일



고홍 한윤석



곡성 김광희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섬진강변 꽃씨 뿌리는 날

구례군, 꽃대궐 영근다

한국야생화사회적협동조합 주관으로 추진



구례군은 15일 군민 120여명과 함께 섬진강변 사방사방 꽃길 꽃씨 뿌리기 행사를 가졌다.

‘사방’ 사방은 눈부심의 의미어로 매우 예쁘거나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섬진강의 눈부신 물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꽃길이라는 의미이다.

섬진강 득방길(500m)에 1㏊ 규모로 만든 꽃길은 보라색 부처꽃과 황금빛 친환경 노랑코스모스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을 맞이하고, 10월에는 가을의 서정을 알리는 코스모스와 개죽부쟁이가 물약새와 어울리도록 구례군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꽃길로서 주목된다.

이번 행사는 구례군에서 종자비를 지원하고 한국야생화사회적협동조합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더불어, 구례자연드림파크, 구례축산협동조합의 후원과 한국생활개선구례군 연합회, 구례귀농귀촌협회, 토지면

세마을부녀회, 구례읍지회, 양정마을 청년회, 대한민국야생화전문가로 임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5m에 꽃씨를 뿌리고, 30cm크기의 리본형 라벨에 이름과 가족의 소원 등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써서 부착하여 사회적 꽃길 만들기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색적이다.

한국야생화사회적협동조합 정연권본부장은 “꽃씨 뿌리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과 월1~2회씩 꽃길 관리와 꽃기구기 교육을 병행하여 사회적 꽃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관심과 열정을 다짐”하였다.

한편 김순호 구례군수는 “사방사방 꽃길 만들기를 시작으로 섬진강 일원에 백화등, 덩굴장미, 흥미화, 물약새 등 사철 꽃피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고흥군,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본격 운영

고흥군은 최근 버스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안내 도우미 5명이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 장날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요 5개 노선을 경유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활동한다는 것.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원활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운전석에 타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수월하게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내도우미 서비스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흥=한윤석 기자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 추진

순천시는 지역 사회 스스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2019년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을 공모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만나 교육적 관계를 맺고, 인적·물적 지원을 교육과정으로 연결, 학생들의 학습율타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세 가지 유형으로 마을학교 시범사업(6개소), 마을학교 씨앗동아리 지원(30개소), 순천시 특색교육 프로그램(4~8개소) 등이다.

지원대상은 마을단위 주민 모임, 공동체, 단체 등 사업 유형별로 구분되며, 시 홈페이지에서 공모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순천시마을학교지원센터(조곡동 82-165,

순천=김승호 기자

기적소리카페 2층)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관심있는 시민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20일 오전 10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담당 직원(순천시 종인로 232)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교육력 회복과 다양한 형태의 폴뿌리자치교육을 위한 주민조직이 육성되고 이를 통해 순천의 온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순천시마을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민·관·학·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마을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선정



정부의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순천시가 노인분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올 하반기부터 2년간 총 33억원(국비 17억, 도비 5억, 시비 11억)을 투

입해, 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노인분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미래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3곳을 선정 발표했다.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 13곳은 광주 서구, 부산 북구·진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남양주시, 충남 천안시·청양군, 충북 진천군 순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 ‘Happiness 순천케어’를 슬로건으로 민성질환자 방문안심케어서비스 등 7가지 순천형 돌봄 특화사업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본격 돌입

영광군은 지난 10일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주제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영광불갑산상사회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축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예산안 등 안건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김용식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제19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의 본격 출발을 알렸다.”면서 “대표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한 전문가 투입,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축제의 브랜딩을 통해 개성 넘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년 연속 문화관광유성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오는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불갑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치매안심마을 주민 사업설명회 개최

광양시보건소는 최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2019 동반성장 혁신허브 실무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양시보건소 실무팀 직원 20명, 포스코 광양제철소 기술혁신그룹 과장 1명을 포함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사업 방향과 목표, 주요일정 등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행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방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무환경 조성과 시무환경 개선 및 시무 혁신을 병행해 균무지와 이용시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9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 운영계획 안내와 실무팀 역할을 부여하고 올해 실천해야 할 안건을 도출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열띤 토론을 했다.

또한 직원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의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희 건강증진과장은 “동반성장 혁신허브 실행방안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으며, 서로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들이 함께 결정한 환경과 업무개선 활동을 통해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함평군, 치매안심마을 주민 사업설명회 개최

함평군은 지난 14일 ‘치매안심마을’ 추진을 위한 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통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함평군 치매안심마을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인지저하자,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까지 치매파트너 및 치매 친화 선도단체 양성, 마을 벽화꾸미기, 치매가정 주거환경 개선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선별 진단 조사도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치매는 주위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효과적인 질병”이라며, “치매안심마을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넣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동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 즉시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법 안내